공장 폐열로 장미·파파야 재배

타이어 제조 공정 발생한 열 활용
곡성군, 하우스 난방 시스템 개발
ha당 年 1억원 기름값 절감 효과

곡성군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장 폐열 등을 이용한 시설 하우스 난방 시스템을 개발, 최근 고유가 시대를 맞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곡성군은 입면 송전리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가스와 열을 활용해 시설 하우스의 난방을 할 수 있는 난방시스템을 개발, 오는 26일 준공식을 갖는다.

이 난방장치는 금호타이어 공장의 연통을 통해 배출되는 섭씨 150도 이상의 폐가스와 열로 저장수조에 채워진 물을 데워 1ha 규모의 시설 하우스 난방을 하는 시스템이다. 국내에서 처음 개발된 이 난방시스템을 활용하면 ha 당 연 1억원의 난방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곡성군은 금호타이어 공장 굴뚝을 통해 사라져 버리는 폐열과 가스를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공장옆에 실험용 시설 하우스를 만들었다. 지난 2004년 지방비 4억원과 정부 지원금 4억원, 올해 8억원 등 1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현재 파파야와 장미가 심어진 이 하우스의 난방설비는 올 가을부터 가동된다. 곡성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열·가스량으로 최대 10ha의 하우스 난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는 요즘 새로운 대체에너지원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주목된다"고 말했다.

/곡성=장필수기자 bungy@

나주시 공무원들 "삼계탕 먹어요" 나주시청 공무원들이 매주 수요일 구내식당에서 점심으로 닭과 오리를 먹는 등 양계 농가 돕기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농협중앙회 나주시청지점(지점장 김의진)이 400인분의 삼계탕을 제공했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영암 덕진초등생 효 체험으로 인성교육

26명 병원 위문공연

영암 덕진초등학교(교장 배남주)가 가정의 달을 맞아 병원 위문공연으로 인성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덕진초등학교 학생 26명은 지난 19일 영암 효병원에 입원중인 70여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물놀이와 무용, 위문편지 낭독 등 다양한 위문공연을 벌였다.

학생들은 노인석 교감과 최은주, 장옥순 교사의 지도로 공연 프로그램을 사전에 계획하고 틈틈이 연습해 이날 할아버지, 할머니 환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특히 올해 왕인축제 개막식에 초청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사물놀이 공연팀이 수준 높은 기량을 선 보여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사진〉

덕진초등학교 노인석 교감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는 성과를 거뒀다"며 "일회성 효 체험 교육으로 끝나지 않도록 앞으로도 노인들을 공경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박진표기자 lucky@

중풍·치매 노인 시설 '은빛마을' 강진에 준공

중풍이나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들의 의료복지시설인 '은빛마을'이 강진에 들어섰다.

4억5천여만원을 들여 강진군 도암면 계라리에 준공된 은빛마을은 면적 430여㎡의 1층 건물로 요양실과 목욕실, 물리치료실, 식당 등을 갖추고 있다.

6명의 간호사와 요양사가 몸이 불편한 20여명의 노인들을 돌보며 직접 가정을 찾아가 도움을 주는 재가 서비스도 추진한다.

은빛마을은 지난해 개원한 강진노인요양시설에 이은 두번째 노인 의료·요양시설로, 강진군은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법성포 단오제' 6월 7일 개막

400년 전통 … 제례·민속놀이 체험 한마당 등 다채

400년 전통의 '법성포 단오제'가 다음달 개막된다.

법성포 단오보존회는 오는 6월 7일부터 9일까지 법성포 일대에서 '단오제례와 민속놀이 체험 한마당'을 주제로 단오제를 연다.

법성포 단오제는 산신제를 비롯해 당산제와 용왕제, 문굿, 선유놀이, 연등행진 등 전통 제례 의식과 전국 국악경연, 그네뛰기, 연날리기, 씨름대회가 펼쳐진다.

이에 앞서 25일에는 굴비골 영광 마라톤대회가 열리며 굴비 체험, 창포 머리감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준비된다.

법성포 단오보존회 오진근 회장은 "법성포 단오제가 국내 최고의 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손님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음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광주 송정농협 '사랑의 봉사대' 발족

월 2회 독거노인 등 봉사

광주 송정농협(조합장 나훈) 사랑의 봉사대가 발족했다. 〈사진〉

지난 21일 송정농협 경제사업장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랑의 봉사대' 발대식에는 자원봉사대원 80명과 후원자, 내부조직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송정농협 여성 조직으로 구성된 '사랑의 봉사대'는 불우이웃과 무의탁 노인,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매월 2회씩 청소와 빨래, 이·미용, 목욕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나훈 조합장은 "갈수록 고령화되면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과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원로 조합원들이 늘고 있다"며 "사랑의 봉사대가 서로 도우며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하서 김인후 유물전시관 개관

장성 필암서원에 29종 3천794점 전시

조선시대 대표적 유학자인 하서 김인후 선생(1510-1560)의 업적을 기리는 유물전시관이 문을 열었다.

장성군은 21일 황룡면 필암리 필암서원에서 이 청 군수를 비롯해 군의원과 유관 기관장, 울산 김씨 종중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물전시관 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개관한 유물전시관은 전시실을 비롯해 수장고와 관리동, 휴게실, 연결회랑, 외삼문 등 539㎡ 규모의 전통 한옥 목조 건물로 26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유물 보호를 위해 최첨단 소방시설과 도난방지 시스템을 갖췄다.

유물 전시관에는 지난달 (재)양영재단과 하서 학술재단에서 기증한 유물 29종 3천794점이 전시돼 있다. 유물 대부분은 하서 선생의 유품들로 국가지정 보물 제 587호 노비보를 비롯해 문서와 상징필, 현판, 봉심록 등이다.

장성군은 42억원의 사업비를 추가 투입해 숙박과 선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필암서원은 하서 김인후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조선 선조 23년에 세워졌으며 1662년 사액서원으로 승격됐고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에도 살아남은 지역내 유일한 서원이다.

/장성=장필수기자 bungy@

"엑스포서 잃어버린 물건 찾아가세요"

함평 나비엑스포 조직위 홈피에 분실물센터 운영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에서 잃어버린 물건 찾아가세요"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엑스포장에서 습득된 분실물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홈페이지(www.hampyeong-expo.org)에 분실물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접수된 분실물은 고가의 디지털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비롯해 유모차, 지갑, 신용카드, 안경, 시계, 신분증, 열쇠꾸러미, 모자, 옷 등 다양하다.

엑스포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사진을 통해 자신의 물건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관람객은 신분증 앞면을 복사해 팩스(061-320-3725)로 보내면 되며 조직위측은 확인 과정을 거쳐 택배로 물건을 발송한다.

조직위 관계자는 엑스포 행사가 끝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물품 가운데 귀중품은 경찰서로 넘기고 모자나 의류 등은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할 계획이다. 문의(061-320-2260)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